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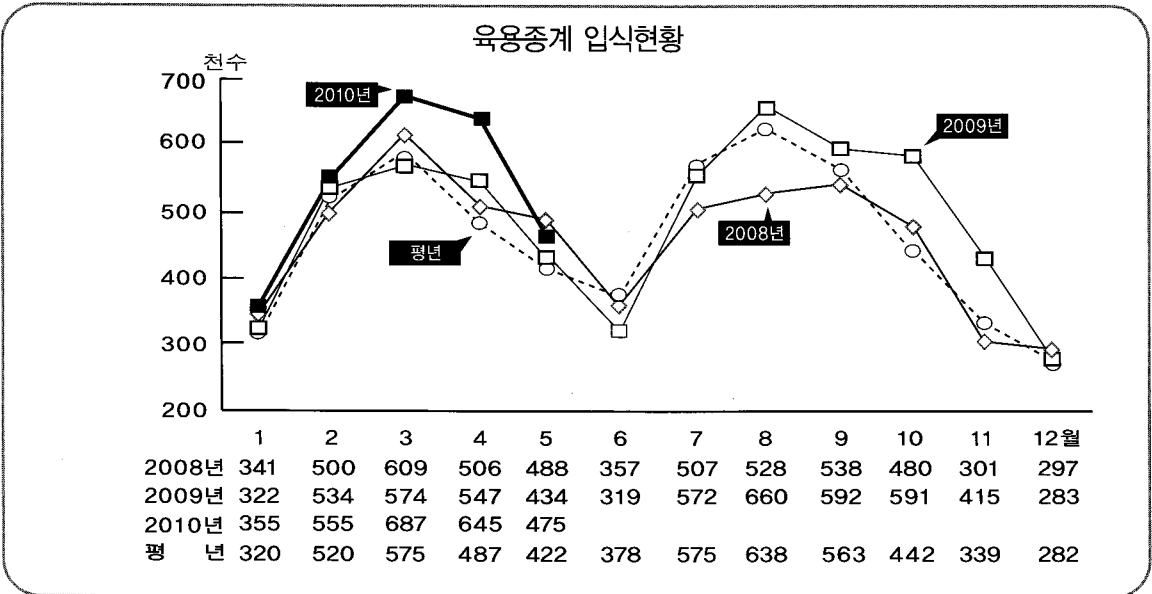


7월 닭고기 수급 전망

1. 육용종계 입식현황

■ 5월 육용종계 입식수수 전년동기대비 9.5% 증가

- 5월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47만4천9백수로 전년동기(43만3천8백수)대비 9.5% 증가했으며, 이는 평년수준(42만2천수)대비 12.5% 증가한 수준이다(4월 64만5천280수 대비 26.4% 감소).
- 5월에도 전년동기 대비 종계 입식수수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올해 5월까지 누계가 2백72만5천수로 전년동기(2백53만1천수) 대비 7.7% 증가했다. 종계 D/B상의 5월 육용종계 사육수수는 6백62만8천수로 전년동월(6백38만1천수) 대비 3.9% 증가했다. 한편 노계의 도태지연으로 종계 산란율과 병아리 발생률이 하락하는 등 종계의 생산성은 다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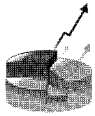
※주 : 평년은 2005~2009년의 입식수수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대한양계협회

2. 배합사료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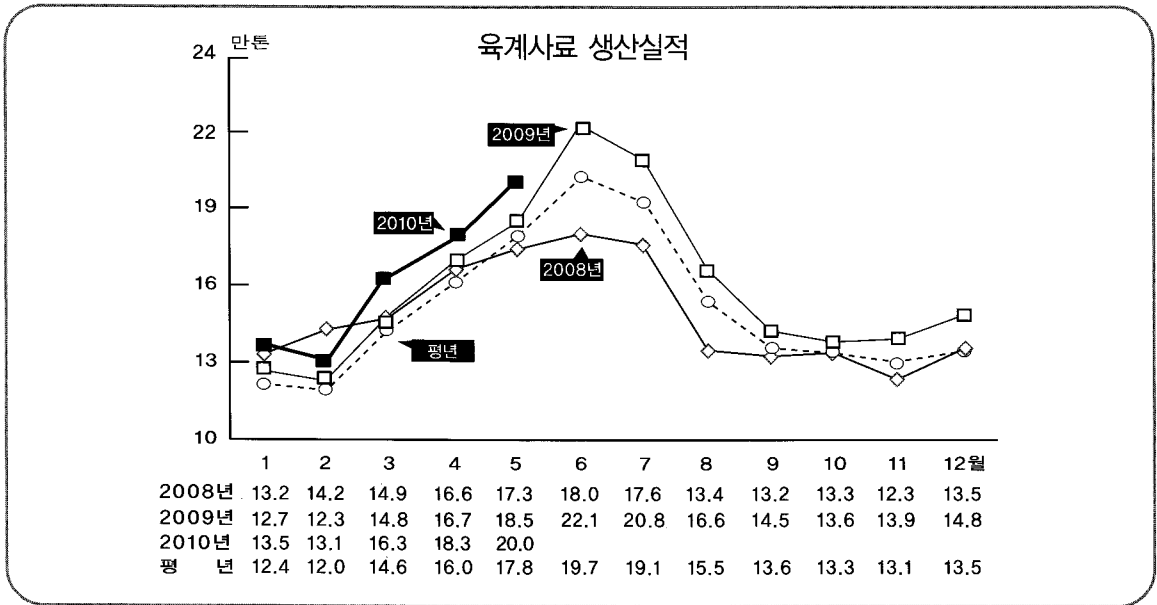
■ 7월 사육수수 전년동기보다 증가 전망

- 7월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5월 육용종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23,924톤으로 전년동월(23,503톤) 대비 1.8% 증가했으며, 전월(25,859톤)에 비해서는 7.5% 감소했다. 종계 입식수수는 계속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는 한편 복물량 생산으로 인해 노계노태가 지연되면서 전반적인 생산성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증가폭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8월 이후부터는 잠재력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5월 육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199,529톤으로 전년동월(185,107톤) 대비 7.8% 증가했으며, 전월(183,388톤)에 비해 8.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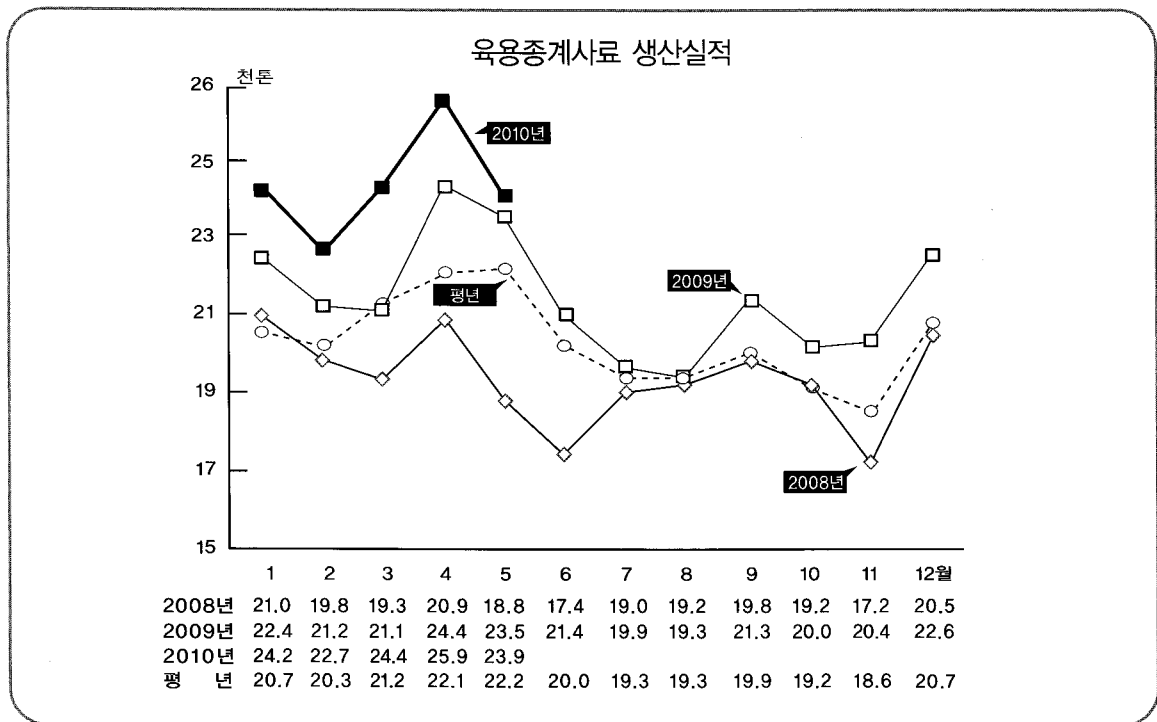
통계

7월 닭고기 수급 전망



※주 : 평년은 2005~2009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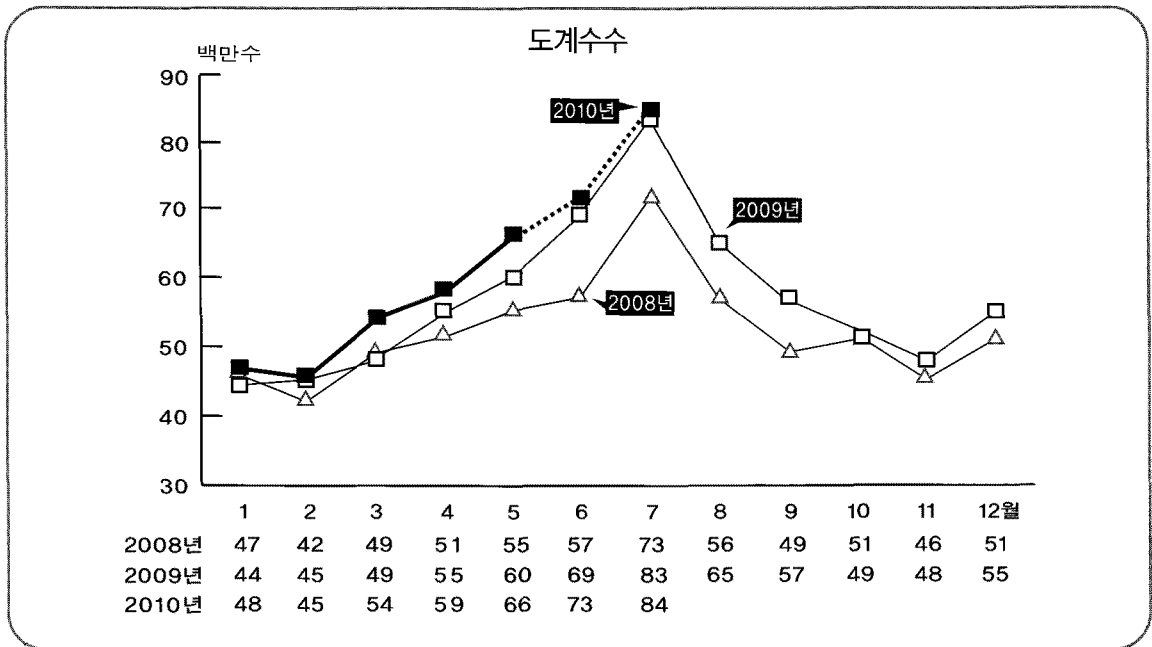
※주 : 평년은 2005~2009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3. 도계수수

■ 7월 도계수수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 5월의 도계수수는 6,620만수로 전년동월(5,954만수)보다 11.2% 증가했으며, 전월(5,895만수) 대비 12.3% 증가했다.
- 7월에는 육계사육수수가 전년보다 증가하고 생산성도 회복되면서 도계수수는 전년(8,282만수)보다 증가한 8,390만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2010년 6~7월은 농경연 추정 및 전망치)

4. 닭고기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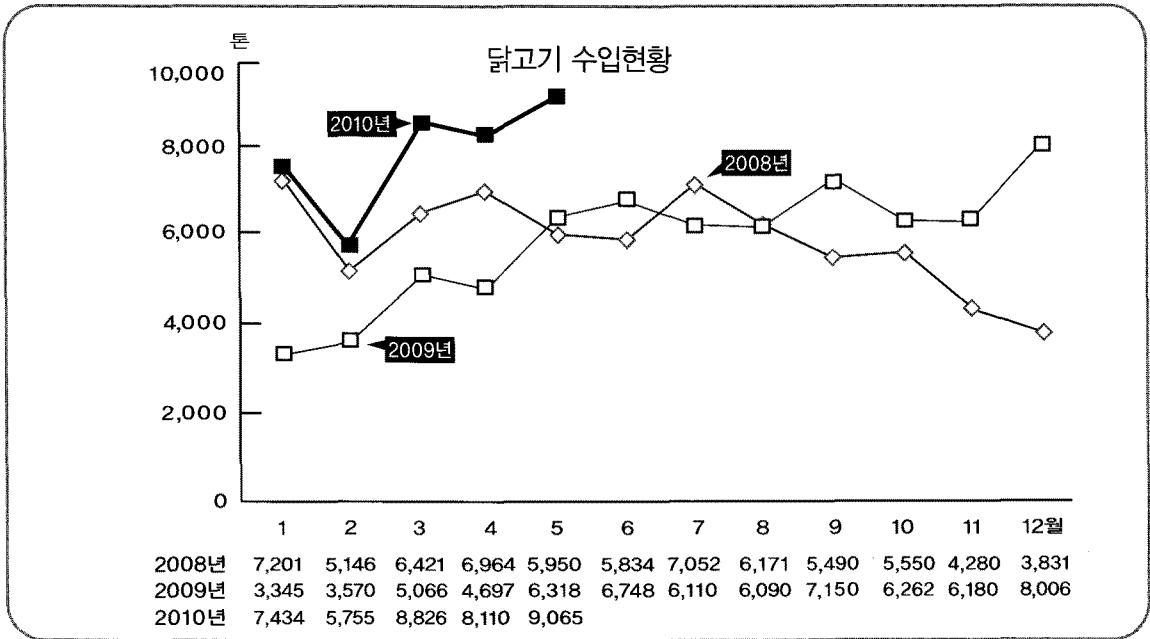
■ 5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증가 예상

- 5월에는 9,065톤이 수입되어 전년동월(6,318톤) 대비 43.5% 증가했으며, 전월(8,110톤) 대비해서는 11.8% 증가했다. 검역기준 수입량은 7,796톤으로 전년동기(5,666톤) 대비 37.6% 증가했으며, 전월(7,951톤) 대비 1.9% 감소했다.
- 국내산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수입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미국산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러시아로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아시아쪽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제가격이 인상 중이고 환율문제도 있어 6월을 기점으로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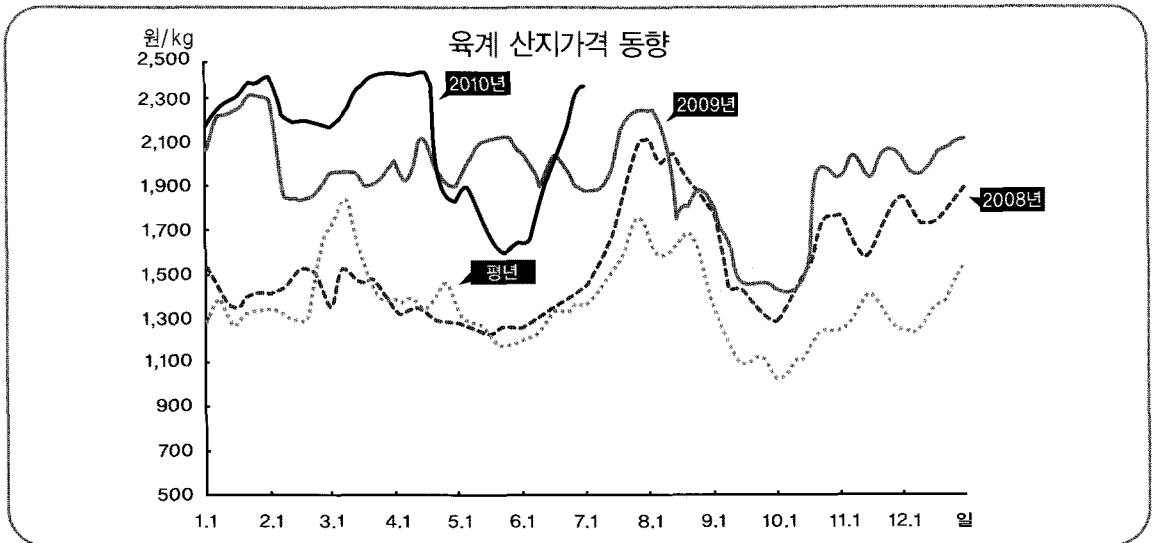
7월 닭고기 수급 전망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5. 가격동향

■ 7월 육계 산지가격 평균 2,000~2,200원 전망



※주 : 평년은 2005~2009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 어린이날 이후 수요감소로 하락했던 가격은 비수기인 6월 들어 초순에는 약세를 보였으나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우리나라팀이 16강에 오르면서 수요가 높게 유지되어 육계 산지가격은 6월(1~28일) 평균 1,894원을 나타냈다(전년 6월 1,939원보다 2.3% 하락, 평년가격 1,359원보다는 39.4% 상승, 전월 1,703원 대비 11.2% 상승).
- 7월의 경우 올해에는 생산잠재력의 증가폭이 커서 공급물량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6월말에 월드컵 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거두면서 수요가 증가한 부분이 월드컵 경기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복과 중복때 수요증가가 예상돼 7월의 육계 산지가격은 전월 및 평년수준보다 높은 2,000~2,2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년 7월 가격은 2,100원, 평년가격은 1,599원).

6. 수급자료

〈육계 및 삼계 입식·비축현황〉

(단위 : 천수)

기간	육계						삼계					
	입식			비축			입식			비축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5. 17 ~ 5. 23	8,036	8,377	104.2%	1,361	2,017	148.2%	3,550	3,270	92.1%	285	800	513.3%
5. 24 ~ 5. 30	8,302	8,515	102.6%	1,596	2,394	150.0%	5,175	4,060	78.5%	388	883	328.4%
5. 31 ~ 6. 6	8,628	8,859	102.7%	1,690	2,508	148.4%	6,265	5,110	81.6%	512	908	280.5%
6. 7 ~ 6. 13	8,780	9,380	106.8%	1,791	2,448	136.7%	5,895	6,000	101.8%	590	918	205.8%
6. 14 ~ 6. 20	8,513	9,358	109.9%	1,987	2,335	117.5%	4,945	5,270	106.6%	693	902	169.0%

7. 결론

- 7월에는 종계 사육수수 증가에 따라 병아리 생산량이 늘어나고 육계 생산성도 좋아져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6월부터 7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월드컵 경기로 인해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한 것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초복과 중복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육계 산지시세는 6월보다 상승한 2,000원~2,2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향후 생산에 가담할 예정인 신계군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생산성도 나쁘지 않아 8월 이후 생산량의 증가폭이 클 수 있어 종계 노계의 도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시세변동요인

구분	생산(공급) 측면	소비(수요) 측면
인상요인	- 무더위로 인한 증체지연	- 초순에는 월드컵 경기로 인한 소비증가 기대 - 중순 이후 초복과 중복 수요증가 기대
하락요인	- 종계 및 육계수수 증가로 생산량 증가	- 하락요인 없음